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 골든클럽 회보

## GOLDEN CLUB NEWSLETTER

MAY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45



### 2024년 첫번째 골프 대회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Sunset Valley Golf course에서 모두 36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첫번째 골든클럽 골프대회를 가졌다.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오히려 골프 치기에는 아주 좋았다. 겨울을 지나고 오랜만에 개최하여서인지 비교적 많이 참석하였고 모든 참석자들이 즐겁게 라운딩을 한 이후에 Alexis Steakhouse에서 식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 골프장이 협조하지 않아 희망하였던 Shotgun 방식을 하지 못하였으나 생각보다 진행이 빨라 마치는 시간이 많이 늦지는 않았다.

새롭게 우리 골프대회에 참석한 인원이 5명이나 되었으며 그중 여성참석자도 2분 있었다. 때때로 선물을 협찬하는 천병수 동문의 New York Yankees 모자를 새로 참가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어

앞으로 회원등록 및 꾸준한 참여를 독려했다. 내년에 구순이 되시는 김익성 회원님과 팔순이 훌쩍 넘으신 김한중, 성기로, 손경택 회원님들이 노익장을 보여 주셔서 인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랫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박준구 회원, 작년 입회한 윤상영 회원의 첫 출전, 이번에는 guest로 왔지만 조만간 입회가 기대되는 노승만, 이위곤 동문과 최한용 회원 부인(문 선)과 즐거운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 홍종만 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선배 동문님들이 전에 비하여 언변이 좋아지셨다고 하는 칭찬도 하며 훈훈한 분위기로 모임을 바꿨다.

## 5월 산행 안내



어느덧 5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쾌적한 시기에, 산에는 싱그러운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5월은 하이킹 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심혈관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고, 하이킹은 공기와 햇살, 연초록 산천 초목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분도 좋게 해줍니다.

지난 4월 11일 하이킹 계획은 비 소식으로 부득이 취소하였지만, 이번 2차 하이킹도 비교적 쉽고 무리하지 않은 등산로를 선택하였으니, 많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며, 집결장소로 오기 불편한 분은 Trailhead로 직접 가셔도 됩니다.

**일시:** 5월 16일(목) 9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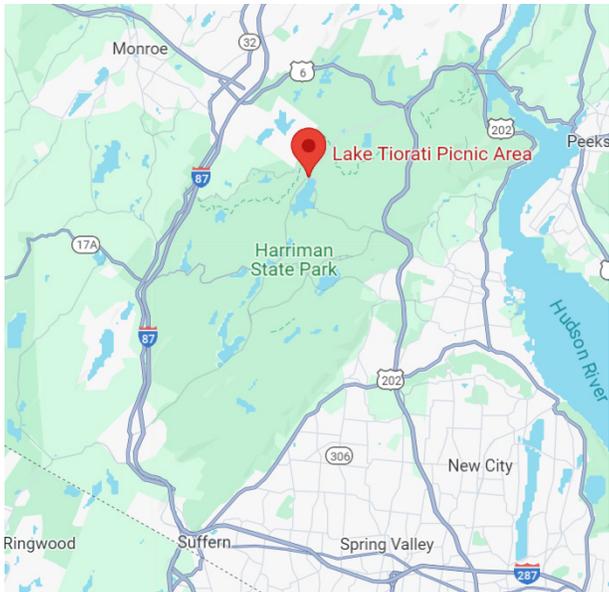
**집결장소:** PIP exit 4-5 Commuter Parking Lot  
(GPS 좌표, 41.0282, -73.9388)

**Trailhead:** 9시 30분, Lake Tiorati Picnic Area Parking Lot  
(GPS 좌표, 41.2747, -74.0895)

**준비물:** 등산화, 하이킹 폴, 음료수와 간이 도시락  
(하산후 Pizza Pit에서 뒤풀이 합니다.)

Pizza Pit: 57 Orange Turnpike, Sloatsburg

**문의/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 2024 신년교례회 결산 보고

				3/25/2024
<b>수입</b>				<b>\$8,400.00</b>
참가비	70	\$120.00	\$8,400.00	
(연주자등 7명 회비없음)				
<b>지출</b>				<b>\$19,316.73</b>
Double Tree Hotel	Noah		\$11,600.00	
선물비	BOA		\$2,850.00	
상품비	BOA		\$480.00	
9순기념 선물	Noah		\$2,037.18	
연주자	Cash		\$1,400.00	
Van	cash		\$400.00	
Tip	Cash		\$100.00	
Printing	Cash		\$100.00	
Wine	BOA		\$349.55	
<b>결산</b>				<b>(\$10,916.73)</b>
Directory Publishing				\$3,087.18
연회비	14	\$100.00	\$1,400.00	별도
후원금	1	\$300.00	\$300.00	별도

## 2024.04.25 Sunset Valley Golf

<b>수입</b>			
참가비	36 x 120		\$4,320.00
<b>지출</b>			
			<b>\$5,076.00</b>
Sunset Valley Golf @84		\$3,024.00	
Alexus Steak (dinner) @40		\$1,400.00	
Prize		\$390.00	
Lunch		\$262.00	
<b>Balance</b>			<b>-\$756.00</b>

Close pin: 광선섭 김태일 임도혁 이영범

- 1등: 우규환 (-3)
- 2등: 홍선경 (-1)  
김태일 (E)
- 3등: 김익성 (E)  
성기로 (+1)  
천종화 (+2)

### 알립니다.

이영범 회원 (공대71)이 이번 5월호 부터 편집위원으로 함께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기행문,수필, 가족 행사 기사와 사진들을 항상 모집합니다. 그리고 뉴스레터의 발전을 위한 제안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곳은 1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lexus Steak에서 열린 dinner와 시상식



Close pin 수상자 이영범 임도혁 곽선섭 김태일



입상자 우규환 천종화 홍선경 성기로 김익성 김태일



처음 참석한 노승만 이위곤 윤상영 문선 황영교

조달훈 회원의 근황

지난 4월 17일, 자전거 길을 따라 Englewood까지 올라갔다가 병원 근처에서 되돌아오려 했는데 늘어진 나뭇가지를 피하려다 자전거는 걸리고 몸만 앞으로 튀어나가 머리와 왼쪽 어깨로 착지했습니다. 다행히 Helmet의 도움으로 머리는 보호되었지만, 갈비와 어깨뼈에 금이가고 빗장뼈는 부어오르고 휘어진 것이 만져지는 상태입니다. 행인의 도움으로 Ambulance를 불러 Englewood Hospital Emergency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위독하다며 다시 Hackensack Trauma Center로 보내졌습니다.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폐렴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 하라는 진단도 받은 후 집에서 회복 중이지만, 다친 어깨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왼팔 지지대를 목에 걸치고 있습니다.

조달훈 회원부부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회복 기간을 휴식, 독서, 성찰, 걷기 운동에 적절히 배분하고 있어, 6-7월 행사부터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복 과정에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준행 명예회장 근황

2016년 'NY Culture, People' 에 게재되 이준행 회장님 소개글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초 여주영 회원이 인터뷰하고 이 회장님의 근황 팸플릿을 만들어, 4월 12일 전해드렸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골든클럽 피크닉에도 관심을 보이며 아무쪼록 골든클럽 회원들과 함께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당부하시며 \$10,000을 기부하셨습니다.



## 한민우 동문 (의대 69) 과의 대담

4/1/2024

장소 - 감미옥 참석자 - 홍종만, 김정필, 금영천

미국이민 - St. Luke's Roosevelt Hospital Pathology Residency (New York, NY), Parkland Memorial Surgical Pathology Fellowship (Dallas, Tx), Attending pathologist, Albert Einstein Medical School. (Bronx, NY), Attending pathologist, Hackensack University Hospital (Hackensack, NJ)

**[학창시절]** - 재동국민학교, 경기중고등학교, 서울의대 졸업  
재동국민학교에서 가까운 계동에 살면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모두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학창시절에 착실했습니다. 몸이 아파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더라도 학교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에는 공과대학에 진학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비참했던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셨으며, 전쟁 중에도 의사는 필요한 사람이고, 의사는 어느 나라를 가도 존경받는 직업이라며 의대를 권고하셨습니다. 의과대학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고, 재학시절 의대생들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상의학적으로 저는 소음인이라고 들었는데, 성격상 나서는 걸 싫어하고 조용히 사는 성격입니다. 졸업후에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결혼, 이민 신청 후 비자가 나오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내과 수련을 마치고, 아이 둘 낳고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병리 트레이닝을 마치고, Albert Einstein에서 4년간 조교수로 재직 한 후, Hackensack 병원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안사람은 realtor로 일했고, 아들은 위장내과 전문의, 딸은 소아암 전문의, 사위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5남매중 장남이고 중매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대학을 나왔으며, 키도 크고 미인으로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5남매의 막내로 성격이 좀 있고, 5남매중 장남인 나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전문의 과정 어플리케이션 레터를 많이 보내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어, 많은 양의 타이핑도 하고, 발송도 하는 등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기 또는 취미]** 취미, 그게 나의 큰 약점입니다. 이것저것 해 보았지만 특히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세상 사는 것 그 자체가 취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 버겐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체스를 배웠는데, 지금은 손자를 가르치기엔 생각이 잘 안나 어렵습니다. 현재 집에 10년 정도

살았는데 바쁜 일정에 뒷마당을 느긋한 마음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은퇴후에 벤치 테이블에 누워서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것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일이 많아 취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방학 때면 같이 외국 여행을 꼭 다녀왔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40-50대) 몸으로 때우고, 60대 이후에는 경험이 생겨 일의 처리가 빨라져서 젊은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직업상 오래 앉아 같은 자세로 일을 해서인지, Disc 증상으로 고생했으며, 요가도 하고, Gym에 다닌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가훈]**

배에 선장은 하나다. 대부분의 일은 엄마가 결정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아빠

가 하고, 모든 책임은 아빠에게 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좋은 사람은 엄마이다.

**[생활의 신조]**

열심히 해라.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는 지금 현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오늘 열심히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내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골든클럽에 참가하게 된 동기]**

와이프가 산행을 좋아하는데, 골든클럽에 좋은 산행모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골든클럽은 경험이 많은 선배 동문들께서 기초를 잘 닦아 놓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회원으로서 잘 적응해 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

아버님은 협심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 나에게 꼭 할 말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미국 땅에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나는 항상 삶과 죽음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못 보지만, 내가 꽃밭에 앉아 있으면 예쁜 꽃을 보고 기쁘듯이, 내 주변의 모두가 행복하면 내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꿈도 착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악한 것을 많이 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악몽을 꾸면 안 좋으니까요. 그렇게 살다보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좋은 꿈을 계속 꾸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즐거운 순간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 우리 골든클럽은

■ 김정필 (공대71)

얼마전 주위에 있는 동문(71학번)들에게 골든클럽 입회를 권유해 보았다. 그때 받은 답변은 ‘그 골든클럽은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의 모임이라서 아직 가입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는 것이었다. 최초 골든클럽이 결성되었던 1998년의 주축이었던 회원들은 평균 50학번이었는데 당시에 60대 후반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여 지금의 골든클럽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미 70대 초반이 된 동문들이 오히려 골든클럽에는 80세 정도가 되어서 가입하면 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 꽤 당황하게 되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골든클럽에 소속되어있는 회원들의 분포는 어떠한 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 대학 입학 학번별 현황

아래 표를 보면 55-59학번 (25%), 60-64학번 (28%), 65-69학번 (20%)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략 63-64학번이 그 중심을 자리하고 있다. 70학번 이후는 1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골든클럽에서 신규회원 영입대상이 80년대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65~79 학번을 대상으로 하여야 입회에 거부감도 적고 쉽게 동질화

학번	숫자	비율
45-49	2	2%
50-54	11	10%
55-59	27	25%
60-64	30	28%
65-69	21	20%
70-74	13	12%
75-79	1	1%
80-84	2	2%

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79학번만 해도 60대 중반이니 저희 클럽과 잘 맞는다고 본다. 80년대 이후는 뉴욕동창회에서도 희소한만큼 뉴욕동창회의 활동영역으로 남겨두고 골든클럽에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정기적으로 해준다면 동창회와 골든클럽에

모두 win-win이 될 것이다.

### 거주지별

회원들의 분포를 보면 북부 뉴저지가 5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NY 지역이 37%를 차지하여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많은 행사가 북부 뉴저지에서 열리고 있는데, NY에 있는 회원들의 편리를 위하여 행사를 가끔 NY에서 가지거나, NJ 지역 행사에는 수시로 van을 운영하여 참가를 도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별	숫자	비율
CA	1	1%
CT	3	3%
GA	2	2%
N-NJ	56	52%
S-NJ	4	4%
NY	40	37%
PA	1	1%

야 할 것이다. 15인승 van은 운전자를 제외하면 14명이 탈 수 있고 골프클럽을 실을 때는 12명정도 탈 수 있는데 비용은 \$400 정도로 골든클럽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단과대

단과대	숫자	비율
간호	3	3%
공대	26	26%
농대	5	5%
대학원	3	3%
명예	1	1%
문리	2	2%
미대	3	3%
법대	5	5%
사대	9	9%
상대	8	8%
생과	2	2%
약대	12	12%
음대	2	2%
의대	16	16%
치대	3	3%

출신대학별을 보면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공대출신 회원들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의대를 제외한 각 단과대학의 학생수 비중대로 골고루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의과대학은 58학번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졸업생들이 미국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도미한 이유로 공대 다음으로 많은 회원들이 있으며, 여전히 더 많은 회원가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 활동 관심 분야

현재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77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골프대회에도 참가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 2022년에 평균 40명 정도 참석하던 것이 2023년에는 34명정도로 줄어들었다. 여행등의 이유로 있지만 몸이 불편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를 감안하여 거리도 멀지 않은 곳으로 대회를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하이킹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봄가을 2차례에 하던 산행을 매월 하는 것으로 하고 코스를 비교적 무난한 곳으로 선정하여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당구 모임이나 지식세미나 등의 모임도 계속해서 행사의 다변화를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신년교례나 야유회등 가족 행사로 할때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신다.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나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더 많이 잘 계획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개기일식 관람기

■ 이영범 (공대71)

올해 99년만에 뉴욕에 개기일식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텍사스로부터 미동부로 관통하는 개기일식 중심 경로 중에 위치한 곳 중에서 4시간 정도 운전해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중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인 Plattsburg, NY 근처로 올라가서 관람하기로 하고 이 근처에 1월에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였는데 벌써 만원이고 예약이 안 된다.

미리 올라가 휴양도 할 겸 Plattsburg, NY에서 약 1시간 남쪽에 위치한 Lake George, NY에 호텔을 예약하였다. 4월 6일 주일 예배후 교우들과 함께 Cherry Blossom Park, NJ에서 만개한 벚꽃 구경후 우리 부부는 New Jersey를 4시경 출발하여 호텔이 위치한 Lake George에 7시 30분 도착하여 호수를 바라보며 낭만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했다. 오랜 전통이 있는 Spot Club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고 Plattsburg 근처 유명한 관광지인 Ausable Chasm으로 가서 개기일식을 관람하기 위해 10시 반경에 도착하였다.

에 포함해서만 판매하고 벌써 매진됐다고 한다. Website 예약이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다 검색하고 왔는데 이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없이 Ticket이 필요없는 폭포 구경과 Elephant Trail을 산책하고 조금 일찍 Ausable Chasm 뒷동산에 자리잡았다. 12시 밖에 안됐는데도 벌써 많은 인파들이 자리잡고 있다.

오후 2시 15분이 되니 어김없이 개기일식이 시작되었다. ISO 인증 받은 태양 필터를 사용한 Helioclipse 안경을 쓰고 (같이 갈 친구들을 위해 안경을 12개 샀는데 2개밖에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시시각각 줄어드는 경이로운 태양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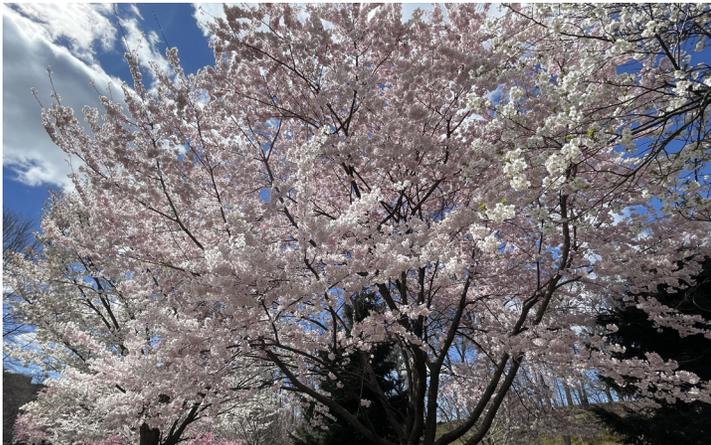


오후 3시 20분 태양이 95%이상 가려졌는데도 아직 환하다. 특수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별로 다른 점을 느낄 수 없다. 3시 26분 완전히 태양이 가려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감탄의 탄성소리가 들리며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믐달처럼 보이던 태양은 달에 완전히 가려서 사라지고 하늘은 깜깜해져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특수 안경을 벗으니 육안으로 달 뒷면이 둥글게 보이고 그 주위에 태양 플레어의 기묘하고 신기한 모습이 관측된다. 어두워진 하늘에 달이 뚜렷이 보이고 달 주위로 동그랗게 태양 화염이 관측되고 특히 아래쪽 7시 부분에 엄



(해가 가려지자 대낮에도 어두워진 주위 모습. 그래도 밤 같은 칠흑은 아니고 저녁에 해가 뒷산으로 넘어간 듯한 어두움이 찾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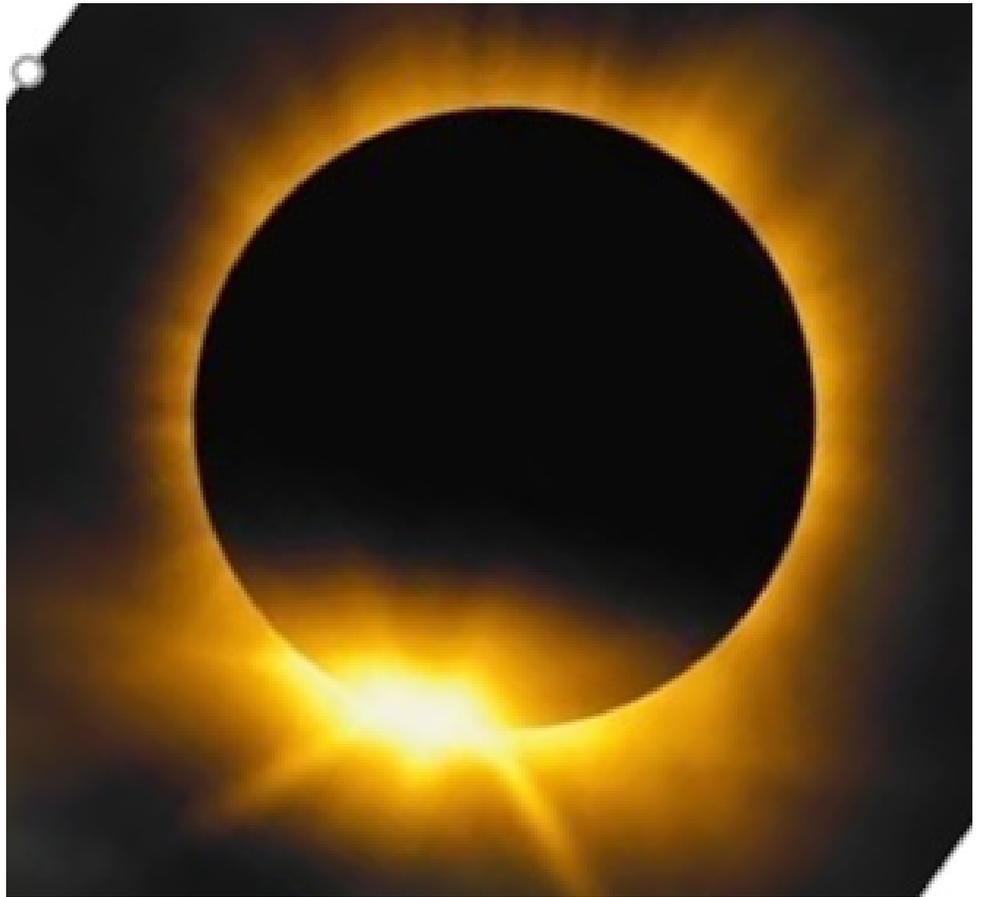


오후 2시 15분 부분일식 시작하고 3시 26분에 개기일식 시작인데 벌써 인파가 많이 모여 있다. 우리는 미리 도착해 2시간 정도 계곡을 따라 Hiking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Ticket Office에 도착하니 오늘은 Tracking Ticket은 판매하지 않고 특별히 개기일식 Pack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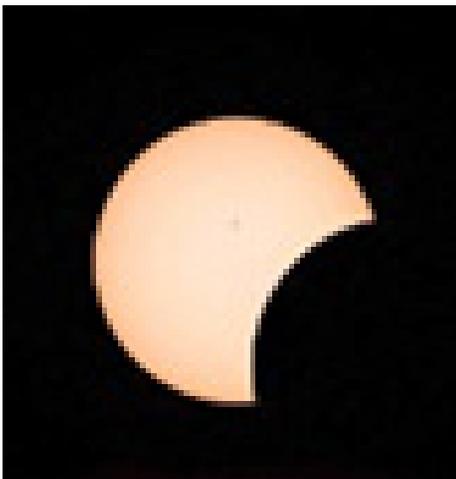
청난 플레어 화염이 내뿜고 있어 우리 눈에 엄청난 화력과 밝기로 관측 되었다. 안타깝게도 우리 셀폰으로는 이 모습을 담을 수 없어 아쉬웠다.

주위는 어둠으로 덮였다. 2-3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고 다시 태양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곧 주위가 밝아진다. 다시 특수 안경을 쓰고 보니 해가 서서히 초승달처럼 나타난다. 개기일식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 장관을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뿌듯함을 가지고 4시경 귀가를 서둘렀다. 돌아오는 길은 조금 도로가 막힐 것은 예상했지만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차들의 홍수로 Interstate Hwy 87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Gas 넣고 화장실 잠깐 들른 후 휴식없이 Non Stop으로 운전하였는데도 집에 도착하니 저녁 10시반이 넘었다. 한 지인은 밤 12시간 지나서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Niagara Falls에 모였던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은 날씨가 흐려서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이 개기일식을 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나에게 온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던 행운에 감사한다. 다음 뉴욕에 다시 찾아올 2079년 개기일식 관람은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 주어야겠다.



(내가 육안으로 직접 본 모습과 가장 유사한 모양을 찍은 사진)



회원 명단 (109명 / 2024-4-25)

강교숙	김상만	성기로	윤재욱	임호순	한영수 한용오/ 한태진/ 한용희/ 허유선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손갑수	윤종숙	정도현	
강영선	김영덕	손경택	윤현남	정수일	
계동휘	김영만	손대홍/ 남종현	이강홍	조달훈/ 조승자	
고애자	김우영	손옥화	이민제	정해민	
곽상준	김익성	송근수	이상무	조상근	
곽선섭	김정필	송웅길/ 송현자	이승준	주상선	
곽승용	김종율	송학린	이 준	주재양	
권문웅	김창수	송혜순	이대연	진봉일	
권정덕	김충정	신진식	이영범	천병수/ 천종화	
홍선경	김치갑	신응남	이용대	최구진	
권영대	김태일	오순문	이전구	최병우	
권태전	김한중	오용면	이종대	최순채	
금영천	김현중	오인석	이준행	최진영	
김광수	노용면	우규환	이행순	최한용	
김광현	민준기	유무영	이흥빈	최학주	
김동건	박기환	윤선규	임도혁	한민우	
김문경	박상원	배상규			
김문언	박희병				
김병순					
김상만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4-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36명참가)
5월	16일 (목)	Hiking
	23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Split Rock Golf Club
6월	13일(목)	Golf Outing
7월	18일(목)	Golf Outing
8월	15일 (목)	Golf Outing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9월	12일(목)	Golf Outing
10월	17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7일(목)	Golf Out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9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72명 / \$7,200 /2024-4-25)

강에드	김영덕	송하린	이승준	천병수	홍예경
강영선	김익성	신응남	이영범	천종화	홍정표
계동휘	김정필	신두식	이용대	최병우	
고애자	김종율	신진식	이전구	최준희	
권문웅	김한중	오용호	이종석	최학주	
권영대	민준기	오인석	이종대	최한용	
권정덕	박기환	우규환	이행순	한민우	
권태전	박상원	윤상영	임도혁	한용오	
금영천	박희병	윤선규	임호순	한태진	
김광수	배상규	윤종숙	정해민	한용희	
김동건	성기로	윤재욱	조달훈	허유선	
김문경	손경택	이강홍	조승자	홍지복	
김병순	손갑수	이대연	이상근	홍선경	
김상만	송근수	이상원	진봉일	홍종만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21명 / \$9,400/2024-4-25)

강에드 200	성기로 500	이종대 200
계동휘 300	손경택 1500	이행순 200
권정덕 300	신두식 200	임호순 300
금영천 300	신진식 300	정해민 1000
김문경 200	오용호 300	최준희 400
김종율 200	이강홍 200	한태진 500
김한중 300	이전구 1000	홍종만 10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한민우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0명 /2024-4-25)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

주소 (Home):



5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금영천 (약대72)

박기환 (문리58)

배상규 (약대61)

오순문 (사대68)

이강홍 (상대60)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